'동행'(同行)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길을 가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광주 동행재활요양병원(대표원장 류기준)은 그 이름처럼 동행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지역의 의료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의 삶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뎌오다 보니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기억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몇 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동행요양병원은 몸 뿐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이자 한 길을 걷는 동반자로 동행한다는 확실한 신념으로 신뢰를 굳혀가고 있다.

첨단 의료 시설·진심 '동행' 모두가 행복한 병원 만든다

양·한방 협진 국내 최고 의료 인력·시스템 구축
노인 돌봄 서비스 영역 확대·체계적 재활 치료
코로나 병실 등 104실 409병상 '호텔같은 병원'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양·한방 협진으로 시너지 효과=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에 개원한 뒤 올해 3주년을 맞는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

외과전문의(박철홍 원장)와 한의사(이한결 원장)를 영입하며 전문 의료진을 촘촘하게 정비했다.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을 필두로 최태진 병원장, 김정민 진료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의 7명, 한의사 5명 등 전문 의료진 12명이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진료 과목은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 있다.

전문 의료진 외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도수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총 직원 2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활치료와 노인 돌봄 등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10명 넘는 인력이 충원되는 등 지역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장비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동행요양병원은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한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양·한방 동시진료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질병치료에서 예방·관리까지, 기존 요양병원에서 축소돼 있던 한방 진료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한의학 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완화와 면역력 회복, 기력 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 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침·약침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탕약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동행요양병원은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성장을 거듭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로,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을 갖췄으며,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이 11층에 운영되고 있다. VIP 병동은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서랍장, 휴게·면회 공간 등으로 구성돼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건물 3~10층에는 요양·재활병동이 자리잡고 있으며 11층 하늘재활센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45명이 상주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 승인을 받고 이듬해 9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거쳤다. 지난해 말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1년차 중간자체 조사를 완료하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선진 의료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심이 한 눈에 들어오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동행 재활요양병원의 핵심 공간이다.

이곳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책상 등 매트운동부터 워킹레일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는 도수치료, 복합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치료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연하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CPM(수동관절운동기구), 신장분사, ESWT(체외충격파), 도수치료(수술 후·중추), 견인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극초단파치료 등 15종에 달한다.

◇함께하며 행복하자…동행의 가치 실현=동행재활요양병원의 진짜 가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시스템 뿐만이 아니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행복을 함께하려는 '동행'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동행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지난 연말 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환자들에게 김장 밥상을 대접하는 '김장데이'를 진행했고, 성탄절을 맞아서는 고령 환자들을 찾아가는 '몰래 산타'로 변신해 연말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앞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진작가를 초청해 입원 환자들의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각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등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환자와 보호자간 비대면 '만남의 장'도 운영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 잔치'와 '이미용 하는 날' '붕어빵 굽는 날' 행사를 열며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 어버이날에는 모든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래자랑과 잔치를 벌이고, 지역 작가를 초청한 전시회도 열었다.

이밖에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그동안 광주은행, 기아 광주공장, 보해양조,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식당'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난이 벌어지자 임직원들이 발벗고 나서 직접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내 부모님을 모신다는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추 및 수술 후 재활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 임직원들이 항상 외치는 '함께해요 동행, 행복해요 동행, 친절·미소 파이팅' 구절처럼 모든 환자와 병원 식구들이 '함께하며 행복' 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며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지역의 의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도심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병원 11층 하늘재활센터 내부 모습.

"출·퇴근길에 부모 뵐 수 있도록…도심 한가운데 개원한 이유죠"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

젊고 능력 있는 의료진…환자를 위한 시설·프로그램
장기 입원보다 치료·재활 도와 일상 복귀 돕는데 중점

"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류기준(43)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이 병원을 개원하게 이유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는 탄탄한 시설을 갖춘 쾌적환 환경의 재활요양병원이 상당수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류 원장은 "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가까이에서 마음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료설비와 재활치료시설 등 전반적인 의료설비는 물론, 젊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시내 외각에 주로 설립되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광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다. 이것도 류 원장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됐다.

"외각에 있으면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 힘들겠죠. 출근 하는 길에, 퇴근 하는 길에, 때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모님과 자식이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저 역시 자식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모를 모셔도 될 병원을 만들고자 했으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을 활용해 환자와 시간을 보내고 가는 보호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다. 류 원장은 같은 자식 된 마음을 담아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

병상간 간격도 현행법 기준보다 더 넓게 배치해 환자들이 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밖에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류 원장은 요양병원은 계속해 입원해 있는 병원이 아니라고 했다.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류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사는 '사회적입원'이다"며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로 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행재활요양병원 최태진 원장도 본인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었다. 몸이 불편해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몸이 회복해 퇴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의료기관으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했다.

병원 직원들과 헌혈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나눔에 나서는 것도 지역사회와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류 원장은 광주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을 맡아 2년째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류기준 원장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루하루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진정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역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